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38장 ..... 다같이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마태복음 18장 2절 ..... 인도자

### 설 교 ..... “선물이 되는 삶”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3.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선물이 되는 삶

마태복음 18:3

불교에 ‘카르마’란 개념이 있는데 ‘업보’로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내 삶은 내가 행한 것의 결과일 뿐이다. 반면 기독교에는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다. 또는 ‘카리스’에서 왔기에 즉 ‘은혜’라는 뜻도 있다. 인생은 나의 선택이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는 조건이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사실 우리 삶은 다 은혜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삶의 과정 전체가 선물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라. 그분의 인생도, 그분의 죽음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가? 예수님은 인류에 선물로 오셨다. 포장지는 보잘것없었어도, 그 안에 구원뿐 아니라 풍성한 삶, 행복, 사랑, 감사, 평안, 능력, 위로, 용서가 가득하다. ▶우리는 서로가 선물이 된다. 예를 들어 아이를 보자.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세상이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자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먼저 간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곳에서는 천국환송예배가 열리지만, 저쪽에서는 천국환영식이 열릴 것이다. ▶가족 구성원 간에는 어떻게 서로 선물이 될 수 있는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함께 하는 시간, 양질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녀들의 가치체계와 믿음 체계는 주로 부모, 교사, 교회, 친구,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죽기 전에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렇지 않다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또한 우리 각자는 가정과 나라와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한다.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죽음도 선물이 될 수 있다. 잘 살 뿐 아니라 잘 죽어야 한다. 모든 삶은 죽음으로 통하고,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태어날 아이를 잘 준비하는 것처럼, 죽을 것도 잘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이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18:3). 제2의 유아기를 말씀하는 것이다. 인생은 유아기처럼 의존에서 시작하여 제2의 유아기에서 다시 의존으로 돌아간다. ‘주도적인 삶’에서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무엇보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사람에 대한 의존은 때로 우리를 속박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자유로 이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행위에서 수난으로, 다스리는 것에서 의존하는 것으로, 사는 것에서 죽는 것으로 옮겨 가셨다.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남기셨다. ▶내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후세대에 선물이 된다. 앞서간 세대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듯이. 우리의 죽음도 우리 뒤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음은 성공이나 생산성에서는 종말일지 모르지만, 열매의 종말은 아니다. 꽃핀 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는 죽은 뒤에 비로소 모습을 나타낸다. 행위는 성공을 낳지만, 존재는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한다. 장례식에서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당신이 세상의 선물이 돼라.